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천재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사람들은 모두 천재의 삶을 꿈꾸고 그들의 부모를 부러워하고 그 삶에 관해 궁금하다. 하지만 작작 천재들은 보통 사람의 삶을 꿈꾸고 자신의 재능이 사람들 앞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

영화 '비투스'는 천재이지만 천재이고 싶지 않았던 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다. 음악 영화이지만 음악 신동이 아니고 싶었던 천재의 삶을 다루고 싶어한다. 프레디 M. 뮤리 감독은 이 간극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시도하고, 음악 영화 이상의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피아노 연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소년 비투스(테오 게오르규)는 자신을 향한 부모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꿈과 삶에 관해

트규는 실제 천재 피아니스트로 영화에는 그가 취리히 캄머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2004년 실황 연주를 사용하고 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원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으로 작곡되다가 다시 협주곡으로 만들어졌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아내 클라라를 위해 작곡되었고, 그녀의 손에 의해 초연되었다.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연주는 바로 마르타 아르헤리치다. 소꿉 공룡 심사위원으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심사위원석을 박차고 나가버린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여류 피아니스트지만 그녀의 폭발적인 피아노 연주는 어지간한 남성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얼마나 강력하게

'비투스' 중 슈만 '피아노 협주곡'

자유를 위한 환상곡

이야기 하는 친구같은 할아버지(브루노 간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들이다.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하여 사랑에 일찍 눈을 뜨지만,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삶. 그냥 평범한 또래 아이이고 싶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거부하는 것에 한탄하는 엄마. 결국 그는 죽은 할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의 삶을 알아내고 있던 대지를 박차고 자유를 향해 하늘로 날아오른다.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비투스는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피아니스트의 모습으로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곡을 연주한다. 비투스를 연기한 배우 테오 게오

르반을 두드렸으면, 실제 연주회 도중 피아노의 현이 끊어졌을까?

아르헤리치는 몇 차례에 걸쳐 이 곡을 녹음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리카르도 샤이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협연반을 추천한다. 실제 공연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 곡의 조연자 클라라가 백발이 되어 재래한 듯 하다. 열정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슈만의 악상이 그녀의 강인한 타건을 통해 자유롭게 펼쳐져 흐른다.

철타워 돌아가듯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굴레 속이지만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눈을 감으면,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와 환상을 향해 우리는 이미 날아오르고 있지 않은가!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문화도시 광주, 이젠 미디어아트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센터에 전문 갤러리

대인시장 '미디어 엑스' 개관... 21일까지 작품 전시

광주에 미디어아트 갤러리가 앞다퉈 문을 열고 있다.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신청에 따라 미디어아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또 작가 육성을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질적, 양적으로 미디어 아트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센터 1층에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와 레지던스 관련 공간을 꾸미고 있다. 현재 여러 장르를 소개하는 종합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을 여는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발표 무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인근의 식당을 개조해 작가 3~4명이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도 조만간 들어서게 된다. 미디어아트 작가 육성과 전시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시장과 레지던스 운영도 작가들에게 맡겨 자유로운 논의와 창작이 이뤄지게 하고, 다양한 기획전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신진작가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 대인시장에 최근 미디어아트 전용 갤러리가 오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장 내 빈 점포에 들어선 미디어 엑스(MEDIA-X) 갤러리는 노출 콘크리트로 꾸며진 99㎡(30평)의 전시실을 갖췄다.

그동안 대인시장에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문을 열어 활동하고 있는데, 미디어 엑스의 오픈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가능해졌다.

오는 21일까지 개관을 기념해 장석원·김일태·박상호·박상화·관승찬·임순중·나명규·이이남씨 등이 참여한 개관전을 연다. 또 솔라이클립스 그룹회원 등이 참여해 퓨전 미디어아트 쇼를 열었다.

그밖에 그룹사운드와 테크노 디제이를 초



미디어 엑스 갤러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행위예술가 '핑크피마'.

청해 첨단영상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라이브 아트 쇼와 쇼이치로 작가의 빛을 음악으로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사운드 아트 워크숍 등 이색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 엑스 갤러리는 앞으로 광주와 서울, 뉴욕, 베를린,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작가들을 초청해 국제교류전과 첨단미디어아트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신도원씨는 "현대적 감각의 첨단영상과 미디어 퍼포먼스를 필두로 새로운 실험작품

을 발표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 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동시대성을 견인하고 힘을 더해 대인시장의 문화적 색채를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차 자문을 받은 뒤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창의도시에 가입되면 미디어아트 분야로는 프랑스 리옹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도시가 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블록버스터전 폐막

2개월간 대장정... 3만여명 다녀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의 해외블록버스터 전인 '요셉 보이스'전과 '인상파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으며 2개월여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미술문화계의 전문가, 국공립 미술관 전시관계자와 학생 등 3만여명이 다녀갔다.

평소 지역에서는 관람하기 힘들었던 마네, 피카소, 샤갈, 미로, 달리,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의 작품과 독일의 국보급 작가 요셉 보이스의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도 줬다. 지역공립미술관이 자체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첫 블록버스터 전시로 국내 미술계의 이목도 모았다.

또 시립미술관 자체결연 사회복지시설인 '형제사'의 원생들이 전시장을 찾아 도슨트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등 문화 나눔의 장이 되기도 했다.

황영성 관장은 "전시 기간 동안 관화 체험 행사와 서양미술사 특강 등 연계프로그램이 결집되어 재미와 감동을 준 전시가 됐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라이어 3탄이 왔다! 돈가방을 쥐고

16~22일 5·18기념문화관

연극 '라이어' 시리즈는 이제 국내 연극계의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실재 없이 터지는 웃음 폭탄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연극 보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오는 16일~22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6시)까지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라이어 3편-튀어' 역시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영국 극작가 레이쿠니의 작품을 한국에 맞게 각색한 '튀어'의 주인공은 어느 날 돈가방을 손에 쥐게 된 농협 말단 직원 영호다.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자신의 가방에 100억 4000만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한 영호.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오는 그는 아내 은영에게 해외로 도망가자고 하지만 은영은 완강하게 반대한다.

여기에 영호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온 형사, 영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친구 부부까지 얽히고 설켜면서 이야기는 어디로 뻗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흘러 간다. 티켓 가격 3만 5000원, 2만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